

부다피아 하와이 영어·문화체험 캠프 현장

공부·견학·놀이 ...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브라이언 선생님의 영어강의를 재미있게 듣고 있다.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민속춤을 관람하고 있는 참가학생들.

‘알로하~’

7월 28일 오전 10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보덕학회(이사장 김영규)가 후원한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참가단 20명이 공항에서 나오자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손수 레이(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하와이 인사말로 반겼다.

호놀룰루시 팰몰로 거리에 위치한 무량사 문화원에서 곧바로 열린 입제식에서 도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하와이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오른쪽으로 다닌다. 또 이곳 사람들은 인사와 양보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생의 길을 익혔으면 한다”며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입제식후 곧바로 영어학교 디렉터(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김민선 교수(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와 강사진인 데니(하와이주립대 석사과정), 브라이언(하와이주립대 석사과정) 선생님의 주도하에 레벨 테스트가 시작됐다. 참가학생들은 영어회화수준에 따라 반이 배정됐다.

김민선 교수와 브라이언 선생님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며 학생들에게 대화를 유도했고, 매일 마지막 시간은 게임식 교육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수업을 즐겁게 진행했다. 수업중에는 현장학습도 곁들여져 개인농장 방문하기, 바닷가 체험여행, 하와이립대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매일 오전에 1시간씩 진행된 특강도 인기였다. 하와이 주립대 김민선 교수는 매일 한시간씩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섞어가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명원다문화원 열리 선생님의 다도 및 예절 강좌를 비롯 하영진 법사와 김정국 사무장의 하와이 이민역사 및 하와이 소개, 사찰소개, 불교교리 특강들이 열렸다.

육색의 하늘, 비온 뒤 선명하게 나오는 무지개, 투명해 바다등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 살아 있는 하와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과 환상 그 자체였다. 가장 많이 찾은 와이키키 해변. 체험단은 에메랄드빛 바다의 품으로 들어가 화려한 색깔의 열대 물고기들과 수영을 한 뒤, 아자수 그늘에서 휴식도 취했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보트를 타고 바다거북을 찾았으며,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에 올라 드넓은 태



무량사내 명원다문화원에서의 다도교육 모습.

영어 수업과 함께 현장 학습 병행 문화 체험하며 타민족의 삶 이해

있는 하와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과 환상 그 자체였다.

가장 많이 찾은 와이키키 해변. 체험단은 에메랄드빛 바다의 품으로 들어가 화려한 색깔의 열대 물고기들과 수영을 한 뒤, 아자수 그늘에서 휴식도 취했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보트를 타고 바다거북을 찾았으며,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에 올라 드넓은 태

평양의 시원한 무공해 바람을 맞기도 했다.

정렬적인 훌라춤과 불춤, 하와이 기타의 선율, 평화롭고 신비로운 폴리네시아 원주민 문화는 체험단을 서서히 빠져들게 했다. 미국의 유일한 공전인 이올라니공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했다.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카누를 타고, 피지 타히티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등 8개국의 문화를 접했으며, 훌라춤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150명의 댄서들이 출연한 ‘마나 우리들의 영혼’은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일라카이 쌍둥이를 타고 세계인들과 어울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파티에 참가했다.

캠프의 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8월 17일 아침 이별의 인사가 이어졌다.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은 “3주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며 “한국에 가셔도 항상 즐겁게 생활하라” 말하며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와이/글=김원우·사진 고영배 기자

■ 참가소감

하와이에서 어학도 배우고 해변 근처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같이 수영, 쇼핑, 과거 파티도 하며, 즐거운 하루 하루를 보냈다. 또 한번 다시 이런 캠프를 왔으면 좋겠다. <민성홍>

하와이 문화를 배우게 되어서 기뻐요. 이곳을 떠날려고 하니 좋고 재미있는 곳 같아요. <모경미>

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체험과 추억들을 잊지 말고 더욱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권대상>

공황에서 내릴 때부터 신기한 점이 많았다. 김민선 교수가 말하신 ‘문화충격’ 그대로였다. 다시 기회가 되면 오고 싶은 곳이다. 무량사 잊지 못할 것이다. <이가영>

아름다운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 풍경도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로만 들던 와이키키 해변... 처음으로 온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김진욱>

캠프를 와서 외국인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 <백중현>

나는 만약 다른 사람이 하와이에 갔다 와서 소감을 물어보고 물어보면, 나는 "무지 좋았다."고 말할 만큼 재미있었다. <김영진>

캠프기간동안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배진영>

알라카이 크루지여행이 기억에 남는다. 배 안에서 춤도 즐기고 음식도 먹고 풍경도 좋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백승이>

하와이는 공기가 너무 좋았고 노을이 멋있었다. 추억을 만든 하와이가 생각날 것이다. <문소현>

말로만 들던 하와이가 이런 곳이야! ~! 라고 알게 되었으며, 환경이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하와이 무량사 파이팅!! <문석용>

배우고 가는 게 많은 것 같다. 수영 한 것, 영어 공부 한 것, 애플이랑는 것, 문화 체험 한 것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다. 잘, 하와이 모두 그리울 것이다. <김은진>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부터 앞섰는데, 하와이에 와 보니, 언니들도 잘해 주었다. <이경경>

나는 하와이에 와서 재미있게 놀고 구경하고 배도 뒀다. <민희홍>



불교의 기준을 정한다

수행 학교 반나라마 개강

부처님이 직접 행한 정통수행법인 싸띠수행(위빠사나, 참선)과 근본불교를 통하여 마음의 휴식과 삶의 여유를 즐기세요. 수행은 자유로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20기 수강생 모집안내

개설과목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
수행교실 I (기초반)	부처님 수행법 기초와 실기	서울 : 화 오전반 10:30 - 12:30 저녁반 7:30 - 9:30
		부산 : 화 오전반 10:30 - 12:30 저녁반 7:30 - 9:30
		대구 : 월 오전반 10:30 - 12:30 저녁반 7:30 - 9:30
수행교실 II (완성반)	부처님 수행법의 응용과 실기	서울 : 수 오전반 10:30 - 12:30 저녁반 7:30 - 9:30 부산 : 토 오전반 10:30 - 12:30
사이버수행교실	부처님 수행법 이론과 실기 * 강의내용은 수행교실 (기초반+완성반)과 동일합니다 (2회 강의)	www.pannarama.net
경전교실	대법처경, 법구경	서울 : 목 오전반 10:30 - 12:30 저녁반 7:30 - 9:30
		부산 : 금 오전반 10:30 - 12:30 저녁반 7:30 -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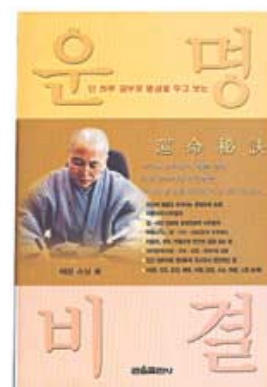
- ◆ 입학식 : 8월 29일부터 각 첫 수업시간
- ◆ 기간 : 8월 29일 - 10월 29일(9회)
- ◆ 지도교사 : 불드미빠-리(本願)스님
- ◆ 모집대상 : 부처님 수행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근본불교와 초기경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 ◆ 수업진행 : 매일 120분 수업 (60분 이론수업 + 60분 수행)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http://반나라마, 대표전화 011)1700-2841
서울 02)597-2841 부산 055)331-2841 대구 053)475-2841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세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욕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가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일체의 역학을 잘 배워 그 한계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문에 취 접점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점수 및 등록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 강의일자 조정 및 통보 (등록 후 일정 조정)
- ※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